

지역소비자정보

서울 소비자시민모임



서울 소시모, 조사사업 및 소비자교육 활발히 전개해

보이스 피싱 예방연극, 상조업체 감시 모니터링, 수돗물교육, 자연온행복밥상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이하 서울 소시모)는 올 한 해 조사사업 및 소비자교육을 활발히 전개했다.

어르신과 사회초년생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했고, 수도권 초·중·고생에게는 수돗물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 도·농 상생을 위한 '소시모 자연온행복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한 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했다. 그밖에도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실천 운동을 확산했다.

“너, 딱 걸렸어~ 보이스 피싱!”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과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구제가 어려워 예방만이 최선이다. 결국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울소시모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주요유형에 대한 정보를 엮어 연극으로 만들었다. 제목은 “너, 딱 걸렸어~ 보이스피싱!”으로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이스피싱 유형인 대출 빙자형, 기관 사칭형, 대면 편취형, 메신저 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요령을 연극을 통해 알렸다. 또 예비 사회초년생에게는 전문 강사의 PPT로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등록된 87개 상조업체 대상 표시광고 전수조사

소비자들이 상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보험이나 예금처럼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시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2월 5일 “상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부터 개정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15억으로 상향 등록한 87개 상조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상조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돗물 인식·음용 실태조사 및 수돗물 교육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수돗물의 공급과 음용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소시모는 2019년 여름, 일반 시민과 전문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 실태에 대한 수돗물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일반인보다 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고 정수기나 시판 생수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돗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서울 소시모는 수돗물 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수도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수돗물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도 전개했다. 또 ‘2019년 청소년 나눔 캠프’를 열고, 지역 축제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건강한 밥상, 건강한 선택 ‘소시모 자연은행복밥상’

서울 소시모는 도·농 간 교류 및 상생을 위해 ‘소시모 자연은행복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농산물 관리제도(GAP 및 PLS교육)와 농촌체험을 병행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했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 농산물 관리 제도홍보 캠페인, 서포터즈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 계절농산물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GAP농가 팸 투어도 진행했다.

이번 ‘소시모 자연은행복밥상’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이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직거래꾸러미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소시모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강사 양성과 이들을 활용한 소비자교육을 확대하여, 소비자 시장 감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참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